



會員揭示板

各支部會員의 적극적 協助당부

공원관리공단서 자연보호운동 持續추진

본회는 지난 4월8일자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전개하는 「'91 국립공원내 자연보호 및 환경정화운동」에 적극 협조하도록 각지부장에게 시달했다.

관리공단에서는 ▲유관기관단체의 적극참여아래 지속적인 자연보호 활동전개 ▲형식적인 행사를 지양(자연보호 행사명분의 무료입장지양·캠페인·오물수거등 자연정화 활동병행) ▲一社一山가꾸기 운동의 확대(1기업체 1공원 자매결연·月1회이상 정화 활동 참여)

▲행락철 특별활동기간 설정운영

- ...봄행락철 : 5.1~5.31
- ...여름피서철 : 7.15~8.30
- ...가을단풍철 : 10.5~11.30

▲일제 정화의날 행사 : 月1회 이상

▲행사장소 : 산, 계곡, 海邊, 河川 등 취약지선정

▲참여대상 : 주관 : 각 관리사무소, 국립공원협회 회원 및 명예관리인, 자연보호기관단체, 관심을 갖는 주민.

※ 본회 도립공원지부 및 군립공원지부에서도 도립공원 관리사무소와 군당국의 공원보호계획에 따라 상기 국립공원의 경우와 같이 자연환경보존운동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입니다. 각 지부간부와 회원 여러분의 창의적인 활동을 바랍니다.

20개 국립공원 심볼마크 素材公募

本會와 公團공동. 親近感심고 추억남아

국립공원마다 각기 다른 정취와 자랑할 象徴적인 동·식물 그리고 경관 등이 있다.

공원마다 다른 상징물을 정하여 심볼마크를 예쁘게 만들어 기념품, 홍보물·차량 셔틀버스등)에 부착 선전하고 있는 선진 구미의 경우는 어린이들에게 친근감과 깊은 추억을 안겨주어 어릴때부터 국립공원 사랑의 정서가 깊이 뿌리박히는데 커다란 역할을

하고 있다한다.

우리 협회서는 지난 90년도 제19차 정기총회때부터 20개 국립공원의 상징물 선정을 국립공원관리공단과 공동으로 추진키로 계획해 왔었는데 금년도의 사업계획에 반영시켰다. 이번 회지 50호에 정식으로 공고하는 동시 이미 지난 4월1일자로 20개 국립공원 심볼마크 소재公募를 공동주최할 것을 공단에 의뢰한 바 있다. 공단은 본부직원을 비롯하여 20개 국립공원관리사무소 및 분소관리요원 전원에게 이 취지를 홍보하고 본회는 각지부와 회지를 통해 각공원별로 회귀동·식물 및 경관에 대해 자신이 가장 잘 아는 공원 1개소만의 상징물도 좋고 20개 국립공원 전부 또는 1부도 좋고 많이 응모해 주면 6월말까지 수집된 것을 종합하여 7월 中旬경부터 공동으로 전문인을 초빙. 심사위를 구성 각공원별 심볼선정을 하게 된다.

각 관리소와 협회 각지부장은 현지주민들의 여론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만 우수한 심볼이 탄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심볼만 정해지면 권위도안사에게 도안제작이 위촉되는데 많은 소재가 들어오려면 학계회원들의 참여가 가장 기대되고 있다. 심볼소재 당선작에 대하여는 92년도 본회 정기총회 석상에서 상패와 소정의 상금을 수여할 예정이다.

本會주최

제2회 국립공원사랑 全國 初· 中학생 글짓기
6月末 공표. 7月初~9月10일까지 공모예정

작년에는 6월10일부터 7월20일까지를 공모기간으로 했던 본회 주최, 국립공원관리공단·서울신문·후원, 코오롱스포츠협찬의 「국립공원사랑 전국 초·중학생 글짓기 현상(장학금)공모」는 작년도 출판 각학교의 의견을 참잡코. 내무부의 후원승인 등을 거쳐

올해는 6월말 공표, 7월초~9월10일까지 공모기간을 충분히 주고 지도교사 및 학교장 직인이 없는 작품은 심사에서 제외시킬 방침. 준비가 완료되면 6월말경 각학교장 앞으로 공문을 발송하게 된다.